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저축은행 부실 사태 추이 및 향후 전망

□ 금융위는 새해 들어 8개의 부실한 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으며, 대규모 인출사태에 대한 우려는 추가 영업정지가 없을 것이라는 단언으로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.

- 지난 달 삼화저축은행에게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후 한 달여만인 2월 17일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영업정지 조치를 받음.
- 또한 2월 19일에는 부산2저축은행, 중앙부산저축은행, 전주저축은행, 보해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으며 2월 22일에는 도민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짐.
- 2월 17일 영업정지 조치 직후에는 3,022억원 규모의 저축은행 예금 순인출이 발생하였으며, 2월 21일에 4,951억원으로 가장 높은 인출 규모를 기록한 후 23일 1,203억원으로 급격히 감소함.
 - 이러한 진정 국면은 금융위가 급격한 인출 사태가 없다면 올해 상반기 추가 영업정지는 없다고 발표하고 저축은행 대주주들도 자구책을 통해 안정화를 이루려고 노력한 것에 기인함.

□ 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확산이 진정됨에 따라 향후 저축은행의 재편방안과 더불어 책임론 및 건전성 대책도 활발히 논의될 전망이다.

- 영업정지가 부과된 저축은행의 자산이 전체 저축은행 자산의 15%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저축은행 업계의 재편방향 논의와 시장의 신뢰 회복 방안이 절실한 시점임.
- 시장의 원활한 기능 회복과 더불어 논의되어야 할 과제로는 저축은행의 부실 사태에 대한 책임론이 있으며 금융위도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철저한 책임 소재의 필요성을 제기함.
- 감독 측면에서는 현재 저축은행 관련 시장의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러한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축은행 건전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음.

(업계 15%가 영업정지 등, 연합뉴스 등, 2/23)